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내 몸에서 벗어나야 모든경계 벗어나

참선이란 대도의 걸음걸이는 차근차근 단계 밟지 않고 한 찰나에 뛰어넘는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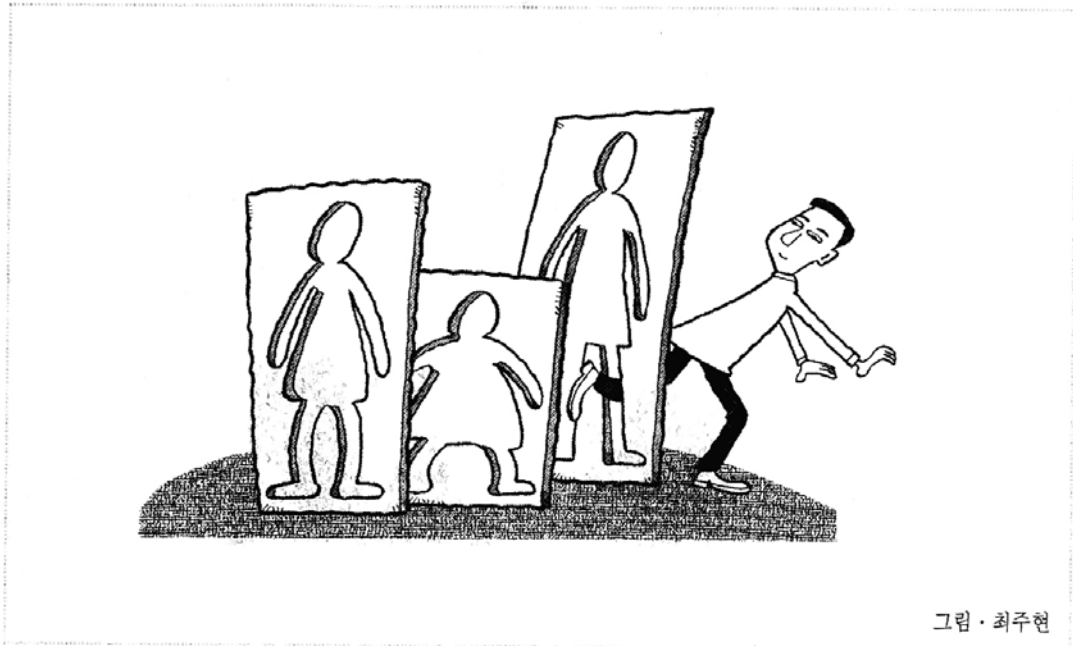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분별없이 무심으로 무행해야 자유권 얻어 소임각각 맡아도 혼자일 아닌 전체의 일

답입니다. 모두가 공해서 찰나찰나 이루어지고 화해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궁정적으로 우리가 길을 찾아서 가는데는 결국은 무심으로써 무행을 해야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의해서 또는 습에 의해서 전에서부터 살아온 걸 볼 때 모두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저렇게 살았으니 저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게 틀리다 저게 옳다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별을 하죠. 그리고 또 학식이 있고 없기에 따라 바보로 만들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 법은, 이게 법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 공법에는 알고 모

르고도 없고 같이 끊어지고 이어진 것도 아니고 또는 오물만 있고 이 한 생만 산다 이런 것도 없고, 요다음에 또 산다 이것도 없고 이 모두가 자기 스스로의 자유권을 얻어야 한다고 말할 합니다. 자유스럽게 자기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만 된다. 그러면 자유스럽게 어떻게 하느냐. 또 그렇게 이름을 만들고 갖추어놓고 다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억지로 계율을 지키야 한다고 애를 써보세요. 계율을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계율을 꼭 지켜야 된다 이거기보다도 계율을 지키는 것이 슬기롭게 잘 지혜롭게 들로 보지 않고 잘 해나간다면 그건 계율을 지키고 안지키고도 없이 그대로 무조건 그냥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계율을 안지키

지킨다고 없죠.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사람이 우주관이 탁 터져서 자기 몸뚱이 주머니에서 벗어나고 있고 나아가서 지구라는 주머니에서도 벗어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이 몸뚱이 주머니 안에서 못 빠져 나가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몸뚱이 주머니 안에서 못 빠져 사람이 어떻게 지구를 벗어나겠습니까. 말로만 우리가 도리천하고 외치지만 이름없이 그대로 벗어나는 길이 진짜로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다고 봅니다. 백번을 말을 하고 백번을 움직여줬다 하더라도 움직여주는 바가 없이 그냥 함이 없이 하고 가느냐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움직여줬어도 움직여진 바가 없고 말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한마디를 해도 틀리지 않게 하셨으리라고 믿으니까 말합니다. 진

정코 자기 속에서 그대로 자기와 돌이 아니게끔 사랑할 수 있으니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드롭니다. 여기에서 정말 만나 가운데서 꼭 포수가 터지고 화산이 터지듯이 그렇게 온 우주에 터져서, 모두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이 된다면 정말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조금도 어김없이 육도의 중생들을 다 건지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미생물이나 지옥고 또는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하늘인간 모두 합해서 다 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한생을 살다 보면은 버리고 다시 옷을 입어야 하겠죠. 그때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높은 차원이 된다면 높고 낮음도 없이 자유스럽게 나눌 수 있겠죠. 부처님 세계에서 자유스럽듯이, 예를 들어서 도깨비 장난처럼 내가 소를 건지려면 소로 들어가고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남의 집에 방문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고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권을 얻어서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과거도 따로 없고 미래도 따로 없으니까 현실에서 그렇게 해가면서 지푸 터득을 하는 거죠. 저는 그전에도 말을 했지만 그거 터득을 해가지고도 실천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안심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걸 한번씩은 다 해봤거든요. 어떤 미숙한 점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의 모두가, 이 보살의 이름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라고나 그런 것도 알았죠.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없이 나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일이나 한 나라의 일을 볼때, 소임은 각각 맡아서 하되 그 전체의 일이지 혼자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자유스러운 권리를 갖는다면 자동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잘못된 일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무슨 기도를 해라 무슨 정성을 드려라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지는 않죠. 자신이 알아서 하시는 대로 공덕이 되는 거니까요. 달마대사께서 암무제러 한 말이 있죠. 당신은 아

16면으로 계속

여

러분을 볼 때마다 아주 마음이 충만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처럼 더불어 같이 이렇게 마음공부하는 분들이 드롭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어느 외국을 봐도 전세계를 다 둘러봐도 별로 없습디다. 어떻게 공부해가나 하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그렇게 직선적으로 들어가기 쉬운 일은 아니죠. 마음이라 하지만 그 마음 하나에서 수만가지로 갈라지는 그 마음을 한데 잡고 나갔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것인데 쉬운 걸 쉽게 금 생각을 못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어느 제자가 은사님한테 "저는 여기서는 시끄럽고 골치가 아파서 공부가 안되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이나 짓고 혼자 공부 하겠습디다"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은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가진 가되 물도 먹지 말고 남이 농사 지은 쌀도 밭도 해먹지 말고 또 땅도 밟지 말고 나무도 베지 말고 불도 때지 말고 일체를 하지 말고 혼자 할 수 있거든 가거라" 하구요. 그러나 제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니 도대체 어떻게 될 하겠습니까. 그대 생각을 바꾸기를 혼자서 할 수가 없구나 불 생각을 했더랍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를 생각해 보니 자기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생명들을 자기 토굴에 있는 중생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고로 깨달아서 많은 중생들을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

하지만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내 토굴이지요. 냉철하게 판단한다면 바로 내 집이자 토굴이자 주머니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토굴을 벗어나야만 된다. 네 토굴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모두를 벗어날 수 없는 경계가 생기느니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리라 믿지만 불국토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불국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꼭 만든다 안만든다 하기 이전에 이미 불국토는 만들어져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불(佛)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이요 교(敎)라는 것은 우리 삶이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어느 종교의 이름을 따서 모아놓고 이 종교가 맞느냐 저 종교가 맞느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의 진리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볼 때에 그 생명들 즉 말하자면 미생물의 생명도 생명이고, 축생의 생명도 생명이고, 인간의 생명도 생명이나 모든 것이 생명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이 생명들이 모두 살고 있으니 불국토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불국토를 만들고 안만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오히려 흐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까. 불교는 경전이 많고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해놓으셔서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말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시자면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물론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될 것도 있지만 참선이라는 이 대도의 걸음걸이는 걸음걸이가 따로 없이 한 찰나에 뛰어넘을 수도 있는 공부입니다. 있다 없다도 없는 것입니다. 있다 없다도 없이 그냥 무심으로써 그대로 행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한 까

법공양페이지는 동침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익인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의 불교

## 인생이란 모르면 생존경쟁, 알면 공부

인생이란 '올라' 하고 고고성을 울리며 나왔을 때에 이미 예고 없는 사형 선고를 받는 가운데 일생을 풍속의 일처럼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다. 또는 잠깐 이승에 소풍 나왔다가 가는 것과 같다. 우리의 육신·재산·권력·명예라는 게 본래 실체가 없어서 허망한데, 찰나 동안 살면서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을 놓고 서로 빼앗고 싸우고 울고보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미 죽을 숙명을 안고 태어난다. 마치 사형이 확정된 죄수와 같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만 나는 내 인생을 몇 십 년 동안 관리할 뿐이라고 확실히 안다면 마음은 생사의 걸림에서 벗어나 편안해질 것이다.

우리는 한 철 살다 가는 나그네이다. 그러한 나그네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평등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매사를 내 탓으로 돌리며 넓은 아량과 지혜를 가진 인간으로 사느냐, 아니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야 하겠다는 모진 마음으로 나가느냐 각자 판단해 볼 일이다. 다만 한 철 나기 위해 이 세상에 와서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간다면 언젠가 다시 와서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지 기약할 길이 아득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인간이란 지구 안에서 그렇지만 대천 세계를 합친 자리에서 보면 티끌처럼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티끌 같은 존재가 티끌 같은 일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나 월가랄바하며 화목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부한다 하

이전에 말 한마디라도 오운도순 곱게 해야 하고 일을 해도 융화를 도모해야 하고 서로 마음을 거슬리지 말아야 하겠지만 몸 떨어지면 그만이지 어느 때 삶의 의미를 알게 되겠는가.

사람은 꿈이 꿈인 줄 모르는 까닭에 혹은 기뻐하고, 혹은 괴로워한다.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쾌락의 꿈과 고통의 꿈에서 깨어나 크게 한 번 걸걸 웃고 명철한 눈으로 이 세계의 참모습을 보며 살아야 한다.

'이 즐거운 세상,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이 편게 살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 편한 것으로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 일시적인 향락이 근본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우리의 삶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나 혼자만이 몰래 하는 일까지도 업이 되어 내게 되돌아온다는 법칙도 알지 않으면 안된다.

몸은 조만간 스러져 흩어질 것인데 자기를 어떻게 영원하다 하는가 라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모습을 바꿔 옮길 뿐이지 죽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비유한다면 에벌레들이 고치를 틀고 들어 앉았다가 나방의 모습으로 화려하여 공중을 나르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은 그러기에 생동력 있게 힘찬 발걸음을 내딛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인생의 최대 문제는 지금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계에서 위 차원으로 올라서느냐, 아



니면 다시 지금의 차원을 되풀이 하느냐, 아니면 아래 차원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 해답은 각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참 나를 깨달으면 영원히 밝은 세계를 보게 된다.

도대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억만의 부를 쌓고, 까마득하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수십 수백만의 사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기껏해야 백년도 못사는 인생, 그렇게 집착하며 구하던 것들도 일단 병들어 죽게 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청산유수 같은 언변도 일 단 몸을 의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다른 유위법적인 보람도 무의미해진다. 그런 것을 바라고 마음 닦는 것은 정녕로 아니다. 고작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위대했던 아무개' 라는 소리가 전해진다 한들 뿌리 없는 일이니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자기의 참 주인과의 해후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나은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는 데 급급해서 공부할 겨를이 없다고 말한다. 그 시간에 물건 하나라도 더 파는 게 중하다는 식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한다면서 마치 부업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토록 바빠 살면서도 여전히 인생살이가 힘겹다고 한다.

지금 현실의 환난과 고통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공부할 사이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통이 모두 나로부터 나온 것이니 나온 곳에도 되돌아가 녹아 내리지 그렇지 않고 영동한

곳에서 답을 찾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변해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환난도 고통도 다 공부의 재료인 것이요, 생활이 그대로 이 공부라 하는 것이다.

과학 문명이 발달된 덕분에 현대인들은 예전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현대인들은 그 여분의 시간을 어디에, 무엇하는 데 쓰고 있는가?

이렇게 살기 좋은 노년자위 안에서 이 노년자위 공부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불법은 만 가지 맛이 나는 과일이고 만 가지 향기가 나는 꽃이다. 그리고 수행자들은 그런 과일을 키우는 농부요. 그런 꽃을 재배하는 정원사라 할 수 있다. 모든 생생 중에서 가장 맛이 나고 해롭지 않은 생산, 모든 농사 중에서도 가장 보람있는 농사가 바로 불법 수행이다. 그리고 그 농사는 다른 모든 일상 생활을 버리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생업을 그대로 가지면서 누구나 불법을 닦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오히려 생업이야말로 불법을 제대로 닦을 수 있는 연마제인 것이다.

인생이란 모르면 생존 경쟁이지만 알고 보면 공부이다.

협찬: 주인공